

차통(茶桶, 차호(茶壺)) : 차에 습기나 냄새가 배이지 않도록 입자를 넣어두는 그릇.		다건(茶巾) : 면이나 무명으로 만든 차수건. 다기의 물기를 닦을 때 사용.	다포(茶布) : 다기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덮어주는 보자기.
			

숙우(熟盃, 물식힘 그릇) : 다관에 넣을 끓인 물을 적당한 온도로 식히거나 우려낸 차물을 찻잔에 내놓을 때 사용.		퇴수기(退水器) : 찻잔과 다관을 데운 물을 버리는 그릇. 마시고 남은 차물과 차 찌꺼기를 버리기도 함.	
			

차시(茶匙)와 받침 : 차를 덜어내는 숟가락과 받침. 차통에서 차를 다관에 넣을 때 사용. 나무 재질을 사용.		개반 : 다관의 뚜껑을 올려놓는 도구.		
				

차상 : 차와 다식을 나르고, 놓고, 마시는 기능을 하는 상.	다반(茶盤) : 찻그릇을 담은 얇은 쟁반.	차탁(茶卓) : 차를 마실 때 찻그릇을 놓는 탁자.
		

차도구는 어떤 차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기능적인 면 이외에 예술적·시대적·사회적인 측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도구는 차를 마시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지만, 차를 담아 마시는 용기일 뿐이다. 이에 요즘에는 사치하지 않고, 바쁜 현대생활을 반영한 실용적이고 편리한 차도구들이 개발되어 있다. 취향을 존중하는 심미성과 실용적인 도구를 통해 차 마시는 즐거움을 알 수 있다.

총괄·기획 강경연
발행 경남대학교박물관

☎ 055-249-2924, 2922
<http://museum.kyungnam.ac.kr>

박물관 연중기획 - 이달의 문화재 : 특별전시

故석암石巖 송병익宋秉翊선생 기증유물 특별전

2016.06.01. ~ 06.30.



경남대학교박물관 특별전시실 (한마미래관 2층)

차 이야기 - 역사歷史와 도구道具에 대하여

차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하여 불교나 통상의 발전에 따라 아시아 및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각 문화권에 따라 독특한 차문화가 형성되었다. 차문화는 역사, 전파양상, 차의 재배지, 종류, 제조, 산업으로의 발달 등 현재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차(茶, Cha)는 중국, 한국, 일본의 공통어이다. 중국 남서부 내륙의 인도와의 경계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차나무(Camellia Sinensis)가 중국과 왕래하는 인접국가와의 문화적 교류를 따라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동양에는 녹차문화가, 서양에는 홍차문화가 각각 형성되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차문화에 대한 비교연구는 우리나라 차문화의 영역을 넓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차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차의 역사

우리나라의 경우 4세기경 인도를 통해서 남해안을 따라 번성했던 금관가야 김수로왕의 왕비 허왕옥이 차씨를 가져와 전래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문헌상으로는 6~7세기인 신라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선덕여왕이 차를 즐겨 마셨고, 문무왕은 예불시 헌다를 지시하였으며, 신문왕에게 당시의 유명한 학자인 설총이 차를 마실 것을 권했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대렴大廉이 차 종자를 가져왔고, 흥덕왕이 지리산 근처에 파종을 명한 기록이 있다. 이는 오늘날까지 지리산 남쪽의 화개와 보석지역들이 차의 주산지가 되어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고려에는 불교의 융성에 따라 차는 왕의 시혜품, 예불을 비록한 국가의 공식행사에 진상품으로 널리 쓰였다. 또한 궁중에는 연회나 의식이 있을 때 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다방茶房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었다. 조선에는 불교가 쇠퇴하고 유교가 국가의 중심사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차문화도 쇠퇴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한국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잡혀가면서 도자기문화와 차문화가 한동안 실종되었으나, 전란이후 200여년간 실종되었던 차문화는 19세기 초에 새로운 부흥기를 맞는다. 당시의 중심인물로는 해남 대흥사의 혜장, 전남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등 승려와 사대부들이다. 이중 초의 장의순은 『동다송 東茶頌』, 『다신전 茶神傳』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 차에 관한 최초의 문헌은 9세기경에 나타난다. 일본의 차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7세기 말 백제가 신라에게 멸망한 후 왕족을 포함한 많은 유민들이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백제문화와 함께 차를 포함한 불교문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의 차 문화는 신라보다 약 300년이 늦은, 1191년 불승인 에이사이永西(1141-1215)가 송나라에서 돌아오면서 차씨를 교토 북서쪽에 있는 고우잔사(高山寺)에 파종하면서 부터 번성하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차의 양이 희귀해서 귀족이나 불가에서 겨우 음용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에이사이는 1214년 일본최초의 다서인 『꼭다양생기喫茶養生記』를 저술하는 등 일본차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차도 ちゃのゆ는 당시의 군벌인 노부나가와 히데요시의 보호를 받던 센리큐千利休(1522-1591)에 의해서 기틀이 닦여졌다. 그는 차와 일본 전래의 시문, 화예, 건축, 도예 등을 연결시켜 다기, 행다법 등 차문화의 기초를 닦았으며 그의 다도는 자손들에 의해 대대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일본차문화의 발흥은 '도자기전쟁'으로 불리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에 의한 도자기문화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도구의 종류 및 용도

차문화에는 차를 우려마시는 도구인 다구茶具를 갖추어야 한다. 과거에는 다구와 다기茶器를 구분하였다. 육우의 『다경』에 의해 구분하면, 다기는 음다飲茶의 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관·찾사발·찾잔 등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데 필요한 도구의 일체를 말한다. 다구는 차를 만들 때 필요한 갖가지 도구를 일컫는 말이며, 어떤 차를 마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찻잎을 따는 일, 차를 만드는 일,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일, 차실 안의 기물이나 장식품, 찻그릇을 거두고 정리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기물 등 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크게 포괄해서 이르는 말이다. 음용飲用과 관련된 한국의 차도구는 아래와 같다.

다관(茶罐) : 찻주전자



※다관은 차를 우려는 그릇으로, 체장치가 가늘고 섬세하여 차 찌꺼기가 나오지 않아야 하고 차를 따를 때 찻물이 새거나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차의 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찻자리의 인원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유사한 형태로는 탕관湯罐이 있는데, 탕관은 찻물을 끓이는 솥이나 주전자를 일컫는다.

찻잔(茶盞)과 찻잔받침(茶托)

